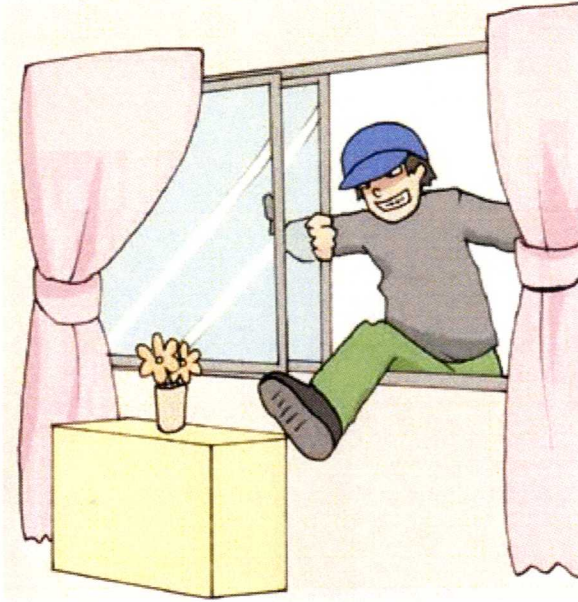


# 여성을 노리는 주거침입 및 엿보기

경계!! 혼자 사는 여성



##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

- 평상시 문단속을 확실히 하여 침입자를 방지한다(2층보다 높은 층에 위치해 있더라도 방심하지 않는다).
- 귀가시 문을 열 때는 주변을 경계하고, '다녀왔습니다(다다야마)'라고 말하면서 집에 들어간다. 실내(현관 등의 모습)가 평소와 다른었는지 확인한다.
- 세탁물은 자주 거두어들인다.
- 문패에 성(姓)만 쓰거나 남성용품을 보이는 곳에 놓는 등, 여자 혼자 사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.
- 배달이나 수금을 가장한 사람이 찾아와도 바로 문을 열지 말고 보조걸쇠를 한 채로 응대하거나, 현관문구멍이나 모니터를 통하여 응대하며 먼저 신분을 확인한다. 짐을 현관 앞에 두도록 하거나, 배달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배달 유무 등을 확인한다.
- 야간에는 밖에서 실내가 보이지 않도록 두꺼운 커튼을 친다.
- 스토커나 치한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사람에게는 의연한 태도를 취한다.

○방법용 센서등이나 알람 센서를 설치하고, 수상한 점이 느껴지면 방법카메라 등도 설치한다.

※6쪽의 '빈집털이 및 야간 주거침입 절도'도 참고하십시오.



## 범행에 직면하면

- 야간에 수상한 소리 등이 들리면 텔레비전이나 방 안의 전등을 켜다.
- 소리를 듣고 침입자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방법경보기를 울리는 등 이웃과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.
- 틈을 타 뒷문 등으로 도망치고 즉시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.
- 범인을 목격했을 때는 얼굴과 복장 등의 특징을 기억한다.



## 피해 후의 대응

- 범인의 지문이나 발자국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경찰 110번에 신고한다(특히 범인이 있던 장소 등에 부주의하게 접근하지 않는다).

## 지한 여성의 적을 격퇴!!



- 남성과 단 둘이 남게 되어 불안이 느껴질 때는 가장 가까운 층의 버튼을 눌러 내린다.
- 언제든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자리에 서며, 상대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.



### 범행에 직면하면.....

-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위의 주목을 끄는 행동을 한다(범인은 남의 눈을 무서워한다).
- 큰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인근 점포나 가정집으로 뛰어든다.
- 휴대전화나 방범경보기를 의도적으로 울리고, 범인의 빈틈을 노려서 도망친다(무서워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등).
- 범인의 얼굴과 복장의 특징을 기억하거나 가능하다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둔다.

#### 전철에서는

- 무조건 용기를 내어 큰 소리를 지른다(‘치칸(치한이다)!’ ‘야메테(하지마)!’ 등).
- 가급적 범인의 옷가지나 손목시계의 특징 등을 확인하며, 만지던 손을 잡고 도움을 청한다. 역에 도착하면 즉시 경찰이나 역무원에게 신고한다.



### 피해 후의 대응

- 신속히 110번에 피해신고를 한다.



###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

- 인적이 드문 도로의 통행은 피한다.
- 어두운 밤길은 피하고 좀 돌아가더라도 밝은 길로 통행한다.
- 방범경보기를 가방 등 바깥쪽에서 보이는 장소에 달아둔다.
- 평상시 귀가길에 있는 편의점 등 피난장소를 확인해둔다.

#### 전철에서는

- 혼잡한 칸은 피하고 비교적 비어있는 칸에 탄다.
- 차량의 구석 등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서있지 않는다.
- 지인 등과 함께 탄다.

#### 엘리베이터에서는

- 타기 전에 주위를 확인하고 수상한 사람과 둘만 남지 않도록 한다.

### 전철에서 지한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(남성편)

- 혼잡한 차내에서는 손잡이를 잡는 등 맨손으로 있지 않도록 한다.
- 여성의 몸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는다.
- 여성이 많은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피한다.
- 동료나 친구와 함께 탄다.
- 음주 시에는 여성 근처에 가지 않는다.

